

주간기도정보

2025. 4. 29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하심이라”

신대원생 인식조사, ‘소명감’ 늘고 ‘윤리의식’ 약화됐다

신대원생 ‘고령화’ 추세 뚜렷… 전통적인 윤리의식은 약화 현상 나타나



신학대학교마다 신대원생 감소로 고민하는 사이 소명감은 10년 전과 비교할 때 약 27.3%p 증가했고, “졸업 후 개척할 것”이라는 응답 역시 5.3%에서 11.2%로 5.9%p 증가했으나 여전히 졸업 후에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대원생들의 소명에 따라 신학교육의 방향과 목회 중심으로 바뀌어야 할 과제도 확인됐다. 신대원생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는 ‘성경 해석 및 성경연구’(64.3%)였고, 학교 커리큘럼에 ‘성경강해 방법’(49.9%)과 ‘영성훈련’(41.8%)을 보강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기독교선교 140주년을 맞아 신학대학원생의 인식과 사역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가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다. 이번 조사는 3월 7일부터 14일까지 전국 22개 신학대학원 재학생 455명을 대상으로 예장 백석, 통합, 합동, 감리회 등 주요 교단 및 초교파 신대원생이 참여했다.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로 침투함에 따라 전통적인 윤리의식의 약화도 확인됐다. 그중에서도 ‘이혼’에 대해 상당히 관대해진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다. 신대원생의 59.1%는 “이혼할 수 있다”고 답했고, 음주에 대해서도 42.9%의 긍정률을 보였다. 신대원생의 시각으로 평신도를 바라보는 윤리의식은 더욱 완화됐는데, 음주 67.1%, 흡연 52.3%, 이혼 76.4%의 허용 양상을 보였다.

전통적 윤리의식이 점점 옛어지는 데 반해 동성애 반대 입장은 더욱 강화됐다. 본인들에게는 물론이고 평신도들의 동성애도 허용할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이 10년 전 85%에서 올해 92.1%로 7.1% 늘었다.

신대원생 ‘고령화’ 추세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조사에 응한 455명 가운데 20대 이상이 30.0%, 30대가 38.4%, 40대 이상이 31.5%로 나타났다. 이는 신대원생의 연령대가 높아지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신대원에 입학했다는 응답자가 42.3%인 반면,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하다가 신대원에 들어왔다는 응답이 47.2%로 약 4.9%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교 학부에서 신학전공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담아내고 있다. 다만, 30-40대 신대원생의 증가가 ‘소명감’의 상승에도 기여했을 것으로 보여 물량적 목회자 양성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양질의 신학교육과 목회자 양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과제도 발견됐다.

신대원생들이 자신이 속한 대학의 교수진에 대해서는 높은 만족도(70.2%)를 보였으나 성경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49.4%에 그쳐 성경연구, 경건생활, 전도와 선교, 심방, 교회행정 등 목회 일선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우려와 달리 신대원 입학 후 ‘사역의 사명감이 강화됐다’는 응답이 70.0%로 높게 나타나는 등 신대원 3년 동안 목회 소명감과 구원의 확신, 천국에 대한 소망 등의 신앙 성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출처: 아이굿뉴스 종합).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디모데후서 1:9)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로마서 2:28-29)

하나님, 한국교회를 이끌어 갈 목회자들을 세우는 신대원생 감소 속에서 소명감은 늘었지만 윤리의식이 약화된 신대원생들의 소식에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시대의 변화와 거센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진리의 빛이 생명으로 나타나야 함을 일깨워 주십시오. 신학교가 결코 사람의 지혜와 학문적 연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화롭게 하는 주의 종을 세우는 기관이 되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한국교회와 열방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며 그날에 상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충성되어 주만 섬기게 하소서.

2. 북한을 위한 기도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북한, 중국 IT업체와 협작 설립…공동 기술개발 뒤 숨은 의도는?

국경 안 넘고 익명으로 활동하며 국제 시장에서 외화벌이



북한이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 소재 중소 IT업체(이하 A업체)와 손잡고 스타트업 설립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I 보안기술 공동 개발을 표방하지만, 실상은 인력의 물리적 이동 없이 중국 기업으로 위장해 국제시장에 손쉽게 진출하려는 ‘북한식 외화벌이’ 전략으로 풀이된다.

데일리NK 중국 현지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평양프로그램공동개발사가 이달 초 이하 A업체와 계약을 맺고 자유무역지구나 스타트업 특구에 협작회사를 등록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등록이 완료되면, 평양 소속 30여 명의 중견 개발자들이 평안북도 연구소 분소에서 ‘익명 개발자’ 신분으로 기술 개발을 시작할 계획이다.

실명을 드러내지 않은 채 협작회사 명의로 보안기술 관련 포트폴리오를 완성한 뒤 이를 다국적 플랫폼에 내놔 수익을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이는 신분 세탁된 북한 IT 인력이 다국적 플랫폼에 참여해 외화벌이하는 기존의 흐름과 유사한 구조지만, 인력이 물리적으로 국경을 넘어 해외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소식통은 “겉으로 보기에는 중국 스타트업이지만, 사실 조선의 인력이 기술개발을 주도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북한은 국제 제재망을 회피하면서 고급 기술 인력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외화를 확보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A업체는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북한 개발자가 만든 기술에 대한 공동 특허를 갖거나 로열티 일부를 받는 등의 조건으로 북한 측과 계약한 것이다. 여기에 개발된 기술을 자사 보유 기술로 등록하면, 중국 지방정부로부터 스타트업 기술개발 보조금이나 세금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사실상 투자비 없이 실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다.

중국 일부 지방정부는 북한과의 이런 협력을 묵인하는 분위기이며, 중소 IT업체들은 북한의 고급 기술력을 활용해 개발 비용을 절감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다. 북한은 이번 협작회사 설립을 무형기술 수출의 새로운 모델로 보고 있으며, 기존 외화벌이보다 고급 기술 기반 수익 창출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도 강화하는 분위기다.

한편, 영국 정부는 북한 IT 인력의 위장 취업을 막기 위해 자국 기업에 화상 또는 대면 면접을 권고했다. 이는 구글 보고서에서 북한 개발자들이 신분을 숨기고 글로벌 기업에 침투해 기밀과 금전을 탈취하고 있다는 경고에 따른 조치다. 최근 미국에서 경계가 심해지자 영국 등 유럽으로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북한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원격 근무를 하면서 적발을 피한다고 한다. 또 이들은 주로 방산 기업이나 정부 기관을 노리며, 해고될 경우 회사의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 위협은 기업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며 화상 면접과 철저한 신원 조회로 이를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출처: 데일리NK, 뉴시스 종합).

약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라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잠언 14:22,24)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린도전서 2:4-5)

하나님,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북한의 외화벌이가 더욱 교묘해져 감을 주께 고하며, 자신의 권력과 체제 유지를 위해 불법 자금을 착복하는 김정은 정권을 꾸짖어 주소서. 돈벌이 수단으로 백성들을 이용해 그릇된 길로 가게 하는 이들의 악한 도모가 망하게 하시고 모든 어두움의 행위는 빛 가운데로 드러내 주시길 간구합니다. IT 개발자들에게 온라인을 통해 진리의 말씀이 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옵소서. 또한 이들이 선을 도모하는 지혜로운 자 되어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 되게 하소서. 몸 된 교회의 간구가 보이지 않는 조력자 되어, 북한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인자와 진리가 충만케 하옵소서.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이 읊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성경 암송, 말씀으로 자녀 양육하는 가장 좋은 길

5개월 만에 500여 구절 암송, 매주 계속되는 쉐마 성경암송 아카데미



한국형 쉐마교육 ‘쉐마 성경 암송 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가 지난 3월부터 매주 토요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CECD 기독교 교육 콘텐츠 개발연구소(이하 CECD연구소)’ 주최 ‘쉐마 성경 암송 아카데미 성경 암송 기초단계 세미나’ 이후 성경 암송을 실천하고 있는 성도들이, 매주 토요일 참석해 1주일간의 암송을 점검받고 있는 것.

CECD연구소를 이끄는 황만철 전도사는 매주 토요일 서울에서 아카데미를 진행할 뿐 아니라, 1주일 내내 전국을 누비고 있다. 조선족들이 모인 부천 한중선교교회에서는 지난 12월 성경 암송을 시작했는데, 별써 5백 구절을 암송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당진 예빛교회 교회학교 학생들은 이미 1천 구절을 넘어섰고, 영어 성경 암송에 앞서 생활영어 문장도 암송하고 있다.

황만철 전도사는 “성경 암송을 원하는 교회들이 있다면 ‘성경 암송은 재미도 없고 힘들다’고 미리 못 박고 시작한다. 재미를 생각하면 암송을 못 한다. 암송이 답이고 유익이 많지만, 이것이 딜레마”라며 “교회들은 무엇보다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싶어 하지만, 암송은 그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털어놓았다.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만난 임현준 학생(고2)은 “암송을 통해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 원래 하나님에 대해 일부만 알았는데,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임현서 학생(중3)은 “제 욕심으로 암송을 하려 할 때는 잘 되지 않았다. 암송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할 수 있더라”며 “욕심을 버려야, 잘 안 외워질 때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부모들도 ‘암송의 효과’가 탁월하다며 입을 모았다. 당진 예빛교회 김희영 집사는 “아이들 암송을 봐주면서, 부모인 우리 신양도 함께 성장하더라”며 “자녀 양육이 세상 지식으로는 실패할 때가 많는데, 암송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말씀대로 자녀를 키우고 싶다는 꿈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같은 교회 이경자 집사는 “암송을 하면서, 아이들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나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 전에는 그냥 성경 을 대했지만, 지금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달라졌다. 암송을 일어서서 하는데, 처음엔 10-20분도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하신다고 느낀다”고 했다.

방과후 활동으로 아이들이 성경 암송을 진행하는 서울북경중앙교회 부모 장태련 집사는 “몇몇 가정이 모여 함께 암송 하는 시간이 매일 예배가 되고 있다. 어머니들도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많이 읽다 보니 분별력이 생기고, 아이들은 인생의 목표와 꿈을 갖게 된다”며 “성경을 더 많이 암송하면, 아이들도 주님께서 원하시는대로 살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여호수아 1:7-8)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히브리서 6:11-12)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잡이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다음세대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고 부모와 교회가 함께 성경 암송에 순종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입에서 선포된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까지 뿌리내려 세속의 물결 속에서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룩한 예수교회로 담대히 일어나게 하소서. 각 가정과 교회 안에도 성경 암송과 함께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며 믿음이 자라나는 거룩한 문화들이 퍼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믿음과 인내로 주의 약속을 굳게 붙든 다음세대가 일어나 세상의 썩어질 유업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주신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하소서.

다음은 ‘열방의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